

두 '문명'의 공존을 기대하며

김석영 | 산업기술정보원 정보콘텐츠본부장

1980년대 이후 개인용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우리 주변에는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컴퓨터의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이 종이에 글씨를 쓰는 것만큼 자연스러워졌다. 더욱이 인터넷의 출현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금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자가 1천4백만명에 이른다고 하니 세명 중 한명은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얘기가. 이런 변화는 주로 인쇄자료를 발행해온 출판업계와 인쇄자료 중심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온 도서관계에 매우 충격적이다. 향후 초고속정보망이 구축되고 현재보다 1천배나 빠른 인터넷시대가 오면 저자(정보생산자)와 독자(정보이용자)가 직접 연결되므로 그 중간 역할을 해오던 인쇄자료는 물론 도서관도 필요없을 것이라고 일부에서는 성급하게 전망하기도 한다.

필자는 지난 한해동안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에서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인쇄매체와 전자매체에 대한 선진국의 전망을 매우 관심있게 살펴왔다. 미국 전역의 수많은 컨퍼런스에 참가하고 전공교수 및 정보전문가와 대화하면서, 그리고 각종 연구논문을 종합해 필자가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인쇄매체와 전자매체가 반드시 공존한다는 것이다. 즉 컴

퓨터와 통신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쇄매체와 전자매체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러므로 전자매체는 인쇄매체의 보충자료에 불과하며 인쇄자료를 완전히 대신할 수 있는 대체자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정보학자인 랭커스터 교수는 1970년대 초에 네트워크에 기반한 종이 없는 사회를 예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그가 도서관잡지에 발표한 논문 <종이 없는 사회에 대한 또 다른 견해>에 따르면 종이 없는 사회의 역기능 때문에 오히려 반감을 느끼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전자서적과 웹진의 발행이 증가하고 있지만, 인쇄물의 발행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자출판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물리적인 책에 대한 선호도 또한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인터넷상의 전자자료는 다이내믹하고 신속한 장점이 있지만 인쇄자료가 주는 인간적인 친근감과 편리함, 그리고 논리적인 접근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전자자료들은 누구나 마음대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질적인 가치가 문제가 있으므로 일단 여과되며 권위성이 인정된 인쇄자료와 근본적으로 비교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인터넷시대에도 인쇄자료와 전자자료는 동시에 증가할 것이며 상호보완하는 공조 시스템을 이룰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나만의 책을 들고 다니며 독서하기를 원하는 한, 여유롭게 책을 죽 훑어보면서 또 다른 지식을 탐구하고자 하는 학문적 욕망이 지속되는 한, 인쇄자료는 우리에게 소중한 지적·문화적 기록매체로 남아 있을 것이다.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서정희

출판저널·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정기구독문의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일허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 - 01 - 0219 - 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 - 6

716 - 5616~9, 716 - 5621~3